

2025년도 제17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 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7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 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25. 11. 3(월) 11: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세미나2실

2025년도 제17회 ARKO한국창작음악제(이하 아창제) 양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 80작품으로, 초연부문 42 작품, 재연부문 32 작품, 해외콩쿠르 6 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의 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8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20%)에 두었으며, 다양한 형태(작품 성향, 구성 등)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블라인드 심사 방식으로 악보와 미디 음원을 사전 검토하였으며, 재연과 해외콩쿠르의 경우 제출한 영상 및 음원 자료를 검토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 최종 작품 선정을 위한 토론 및 투표심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창작의 고된 과정을 묵묵히 이겨내고 이번 공모에 작품을 출품해 주신 모든 지원자들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이번 아창제 작품 공모에서는 재연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예술적 성취와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연 작품들은 관현악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대적 어법의 세련된 활용이 돋보였으며, 작곡가들이 자신만의 음악적 언어를 구축하고자 한 진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반면 초연 부문에서는 작품 간 완성도의 편차가 뚜렷했다. 일부 작품은 안정적 수준의 예술성과 완성도를 보였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악기 음역과 음향 균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관현악적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구조적 짜임새와 형식적 설득력이 미흡하였다. 작품에 나타나는 다양한 실험적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음악적 목적과의 연계 없이 단순한 효과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성악 협연 관현악 작품 우대 조건을 도입하였으나, 제출된 성악 협연 작품 수가 적어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체 작품 중에서 음악적 사유와 표현 의도가 명확하며, 작곡가 고유의 음악적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작품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는 한국 관현악 창작의 현주소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작품이 현대음악의 언어를 다채롭게 탐색하며 창작적 실험정신을 보여주었으나, 청중과의 소통에서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들은 향후 보다 폭넓은 공감과 이해로 확장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아창제는 기술적 세련미와 예술적 깊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며,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관현악 창작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